



농림수산물부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4월 7일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수산물부 유정복 장관은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안정대책, 해외 곡물자원 개발 및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안정대책에 따라 농림수산물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동향과 공급여건을 점검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쌀, 돼지고기, 닭고기 등 11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의 농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보다 14.9% 높은 수준이나, 2월보다는 0.8% 하락했다.

3월 물가가 2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은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봄철 채소의 생육이 순조롭고, 구제역 진정으로 가축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축산물 공급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4월 이후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작여황이 부진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품목별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책을 보면 닭고기와 계란은 한파에 의한 입식지연과 공급애로 해소를 위해 닭고기 5만톤, 산란용 닭 100만수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하고, 종계 시장접근 물량을 46만수에서 66만수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농업관측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급과 가격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참고〉 축산물 수급 대책(닭)

■ 구제역과 SI 발생으로 돼지·젓소 및 닭이 상당수 매몰됨에 따라 부족해진 축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 중임

○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을 최대한 확충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수입 축산물과 가축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여 단기간내 축산물 공급을 늘리는 한편 향후 가축의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살처분두수(4. 4 현재) : 돼지 332만두(전체두수의 33.6%), 한우 11만두(4%) 젓소 36천두(8%), 육계 935천수(1.2%), 산란계 1,769천수(2.8%)

* 축산물 소비자가격 추이

• 한우 등심 1월 이후 지속 하락(원/500g) : (2011. 1)34,062 → (2011. 2)31,460 → (2011. 4 초)31,103

• 돼지 삼겹살 2월 초 최고가 기록 후 하락(원/500g) : (2011. 2초)11,643 → (2011. 4초)9,823

• 육계 3. 31일 7,265원/kg 기록후 약보합세 : (2011. 2)6,612원/kg → (2011. 3)6,983 → (2011. 4. 5)7,160

• 계란 4월 부활절 수요 등으로 강보합세 : (2011. 2)2,018원/10개 → (2011. 3)2,090 → (2011. 4. 5)2,131

■ (닭고기) SI 발생에 따른 육계 매몰수수는

935천수로 사육수수(77.8백만수)의 1.2% 수준으로 닭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닭고기 가격은 시로 인한 입식지연, 한파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하여 2월부터 상승하였으나,

- 지난 3월부터 사육수수가 2월 대비 35% 증가하였고, 기온 상승으로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4월 중순부터는 닭고기 공급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 사육수수 : (1월) 6,346만마리 → (2월) 5,424 → (3월) 7,349(35.4% ↑)

○ 최근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는 소비자가격도 4월 중순부터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가격(kg) : (2010. 4월) 6,246원 → (2011. 3월) 6,983 → (3월 하순) 7,122 → (4.5) 7,160

▶▶ 학교 급식용 축산물 위생실태 특별점검 실시

농림수산물식품부는 학교 급식용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학교 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이 가동(11개반 33명)되었으며,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체에서의 원료육 관리상태, 위생관리기준 운용상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성분규격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의 중앙감시반 특별점검은 학교급식 등 단

체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부적합 업소, 위반가능성이 높은 위생취약 업소 및 품목을 집중 단속했다.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와 함께 학교 급식용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매분기별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을 운영하여 위생취약 분야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물 위생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여 상습적, 고의적 축산식품 위해사범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를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야생조류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야생조류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에 철저한 AI 차단방역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4월 22일 충남 금강하구에서 채취된 야생 조류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아직도 야생조류 분변을 통하여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AI 차단방역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 검역원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점 점검하여 조류인플루엔자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AI 차단방역조치〉

- 가금사육농가 철새도래지, 소하천 및 저수지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 출입금지
- 농장 및 축사 주변에 청소 및 소독 철저
- 가금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
- 모든 축사 입구에 소독조 설치
- 축사 내 전용신발 및 작업복을 두고 축사 내에서는 그 신발 및 작업복만 착용
-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 신고(1588-4060, 1588-9060)

▶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첫째, 축산식품의 관리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개정했고(2010. 11. 26일), 일부는 개정 추진 중에 있다.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되었으며, 닭·오리 식육의 포장 유통 의무화를 모든 도계장(중·전·하루 5만수 이상 도축하는 도계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위해사범에 대하여는 위반업소명 및 소재지, 위반제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표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을 추진 중(현재,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에 있다.

금년 7월부터는 위해 국내산 및 수입쇠고기의 판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해쇠고기판매 차단시스템' 구축 및 인증업소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및 2005년 체첸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프랑스, 러시아 및 중국 등 30개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축산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가공유크림, 조제분유 등 일본산 축산식품에 대하여서는 지난 3월 14일부터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 중에 있고, 동해안 12개 시·군, 제주휴전선원전 주변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 식중독균 검출, 이물질 발견 등 위해사고 발생 우려 취약분야에 대한 업종별·시기별 기획·감시를 실시하여 축산식품의 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터넷 축산물유통, 신규영업형태 등 단속사각지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사전적 위해평가로 설퍼린(Sulphyrine, 가

축해열진통제)의 잔류허용기준과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정량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 접수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2011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와 관련해 오는 5월 31일까지 평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시설은 가축분뇨를 이용해 퇴비화, 액비화 정화 바이오가스화,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로, 처리용량에 따라 농가형과 공동형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평가의 특징은 신규 신청시설의 평가와 동시에 평가를 받은 후 5년 경과한 시설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2011년 재평가 대상에는 2006년에 평가정보가 제공된 시설이 해당된다.

2006년도 평가정보 공개 시설이 올해에 재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기존평가 결과는 올해 평가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를 통해 기존 평가결과 정보에 대해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시설은 2011년도에 수행될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에 준하여 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평가 대상업체의 평가절차는 재평가 해당연도의 평가 공고사항에 따라 실시하며, 해당연도 신규업체와 동일한 기준과 일정에 맞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실시 관련 공고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rda.go.kr)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에 게재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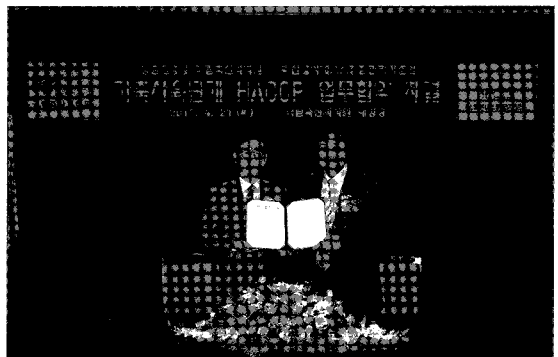
평가실시 공고에는 평가신청과 관련된 제반사항과 필요절차 등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으므로, 평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상의 공고를 다운로드해 활용하면 된다.

평가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므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기간 내에 필요구비 서류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하면 된다.

평가신청과 관련한 상세사항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031)290-1732, 1723

▶▶ 축산물HACCP기준원과 MOU 체결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21일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석희진)과 '축산농장 HACCP 기술발전 및 보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축종별 HACCP 연구협력, 기술보급 전산망 개발, 공동사업 발굴 추진, 각종 기술정보의 상호이용 등을 협력분야로 규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농장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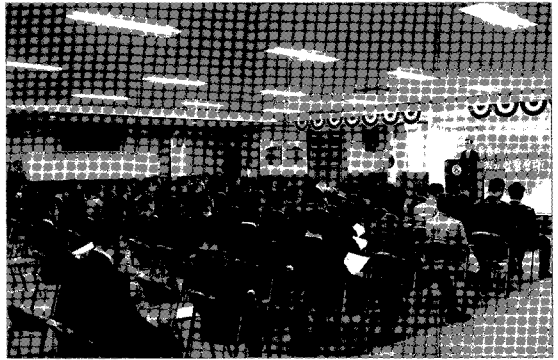
HACCP 보급 확대 및 조기정착을 위한 공동노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축산물 안전성을 농장단계부터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종별 및 기능별 종합연구조직을 갖추고 있어 국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개발된 기술은 전국 시·군 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다.

HACCP기준원은 본원을 비롯해 영남, 호남, 대전 지원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각종 심사, 개선,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축산농장 HACCP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이번 두 기관의 협약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여러 면에서 어려운 우리 축산업을 선진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함은 물론,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견인함으로써 HACCP 제도의 탄생 배경인 우주인 건강식품에 걸맞게 국민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다임 형성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평가원 역할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유통의 New 패러다임 형성 결의대회’를 통해 부분육 유통, 축산물 인증 등 축산물품질평가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축산물 유통분야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창조적 핵심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며, 축산물종합정보시스템인 e-Kapepia를 구축하여 집단지성 활동과 지식자산 창출에 적극 참여하고, 가축질병 발생 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가축이력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생각을 새롭게 바꾸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유연하고 창조적인 기관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최형규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창립 22주년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업계 모든 분의 피와 땀의 결실임을 알고 있어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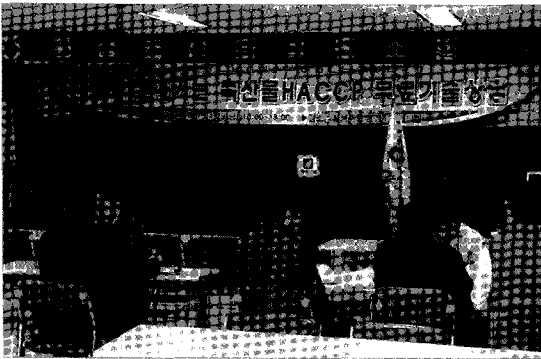
축산물품질평가원

▶▶ 창립 제22주년 기념 결의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창립 제22주년을 맞이하여 구제역 종식선언에 뒤이어 기관대·내외 분위기 쇄신과 축산물 유통의 새로운 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제1차 '찾아가는 축산물 HACCP 무료기술상담'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2011년도 제1차 '찾아가는 축산물 HACCP 무료기술상담'을 지난 4월 29일 횡성축협 본점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금번 기술상담은 강원도지역에 소재한 축산물 HACCP 지정업소나 지정을 준비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날 참여한 업체는 29개소, 31명으로 기준원에서 파견된 상담원 4명이 1:1 형식의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에서는 축산물 HACCP을 추진 중인 업소(농장)의 관심이 높았으며, HACCP을 준비하는 과정과 심사매뉴얼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오늘 상담으로 모두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원거리에 소재한 업체의 편의를 위해 현장상담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준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도 거리상의 제약으

로 방문상담이 어려운 지역의 수요자를 위해 실속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별로 '찾아가는 축산물 HACCP 무료기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201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지난 3월 31일 201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안)과 2011년 사업계획(안) 등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역본부는 2010년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라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의심축 신고시 초동방역팀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이동통제, 시료채취, 역학농가 예찰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지원, 이동통제초소 지원, 소독지원, 매몰지 사후관리지원, 축산농가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 안내 등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확산방지 및 조기근절에 기여했다고 밝

했다.

아울러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상황에서도 주요 가축전염병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및 순회점검사업의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문제 위주의 의심축 보고를 통한 430여건의 법정가축전염병을 검색했으며, 아울러 환경측정장비를 활용한 농장 사양관리 및 환경개선 지도를 통한 농장생산성 향상과 가축질병 발생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혁신사업으로는 출장소단위까지 산하기관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제고하고 행정역량을 결집했으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고객센터를 강화한 결과 201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 통합조사에서 93.1점을 획득하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 사업계획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근절을 위한 구제역, 소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뉴캐슬병 등 주요가축전염병 검사를 위하여 192천여호 1,230천여두의 시료를 채취하며, 가축전염병 조기검색을 위하여 342천여호에 대한 농장방역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한국토종닭협회

▶ 2011년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지난 4월 19일 경기도 수원 소재 농민회관에서 협회 임원 및 대의원 40여명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0년 행사보고 및 감사보고, 자조금 경과보고에 이어 의결사항으로 2010년 사



업실적 및 예산집행결산 승인과 201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2011년 협회 중점사업으로는 토종닭 자조금 설치와 인증제를 통한 소비자 신뢰 증가, 해외시장 진출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소비시장 확대를 꼽았다.

이날 참석한 박근식 자문위원은 격려사를 통해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서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한국토종닭소비진흥협회 이덕영 회장은 축사를 통해 “토종닭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회장 및 임원진의 선출이 있었다.

향후 2년간 본 협회를 이끌 회장으로는 현 회장인 김연수 회장이 연임을 하게 되었다. 김연수 회장은 지난 3월 정기 이사회에서 추대되어 이번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의 승인을 받았다.

김연수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사단법인으로 인가 후 2년간 협회를 이끌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하며, “앞으로 2년간 가일층 노력해 토

종닭 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임 포부를 밝혔다.

2년간 본 협회를 이끌 임원진으로는 ▲ 종계부 화분과 정학동 위원장, ▲ GPS분과 박성진 위원장, ▲ 농기분과 소삼 위원장, ▲ 계열유통분과 김동관 위원장, ▲ 산닭유통분과 노백래 위원장, ▲ 공동브랜드분과 김춘권 위원장, ▲ 수급조절분과 심순택 위원장이 선임되었다.

또한 도지회장으로는 ▲ 경기북부 임남섭 지회장, ▲ 경기남부 안병전 지회장, ▲ 강원도 이대희 지회장, ▲ 충청북도 조수만 지회장, ▲ 충청남도 신영성 지회장, ▲ 전라북도 박상현 지회장, ▲ 전라남도 권윤혁 지회장, ▲ 대구·경상북도 배신국 지회장, ▲ 부산·경상남도 김일한 지회장이 각각 2년 간 이끌게 되었다.

한편 상임부회장에는 문정진 부회장이, 감사로는 서창련 대의원과 오형철 대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 (사)대한영양사협회

▶▶ '산업안전보건 전국협의회' 출범

영양사의 집단급식소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활성화하고 급식관련 산업재해 감소를 통한 안심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전국협의회'가 출범했다.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는 지난 4월 23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선출된 20여명의 산업안전보건대표자가 참여한 '제1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2011년도 산업안전보건활동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급식을 전담관리하고 있는 영양사가 집단급식소 안전문화 선진화에 앞장서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전국산업안전보건협의회 회의에서는 영양사의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단체 협력사업으로 '집단급식소 안전 매뉴얼'을 개발, 배포하기로 하고 회원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09년 집단급식소 재해사례집 발간에 이어 올해에도 회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조사, 수집하여 사고사례를 구축·공유하고 회원 대상의 간담회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경주 회장은 과거에도 집단급식소 기기 안전수칙 자료 배포, 급식 재해예방 교육, 급식 재해사례집 발간 등 영양사의 급식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산업안전보건 전국협의회' 출범으로 집단급식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영양사에 의한 집단급식소 자율 안전보건체계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 저감화에 기여하고 사업장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회원 집단급식소 대상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고 급식 산업안전보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시로도 운영될 계획이다. 